



이 地上에 남아 있고 支石은 土砂에 파묻혀 地下에 들어가 있다. 石質은 安山岩이며 上石은 길이가 最短 二 m 부터 最長 四 m, 幅이 二 乃至 三 m 程度의 大板石이며 이러한 上石이

南北을 長軸으로 하여 地上에 놓여 있는 모양은 南方式 支石墓 같으나 앞에서 말하다시피 이것은 支石이 土砂에 파묻히고 上石만이 露出되어 있는 탓이며 本來는 이 支石墓들은 北方式 形式이었던 것이 틀림없다. 即 筆者가 地下構造를 알고자 그 硯을 試掘해 본 第六七號(圖示) 支石墓에 있어서 地表에서 八十 cm 까지는 後代의 耕作에 依한 腐土지만 그 밑은 川邊에서 흔히 보는 흙은 모래로 되어 있으며 上石을 마치고 있는 板狀 支石은 이 오래 속까지 들어가고 있었다. 이것으로 보면 이 支石墓들은 現在보다는 훨씬 낮았던 옛 地表에 세워진 北方式 形式으로서 그것이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漸次 流砂에 埋沒되어 오늘의 狀態에 이르게 된 것이 分明하다. 從來 알려져 있는 忠南地方 支石墓의 例로는 舒川郡 鍾川面 支石里, 全 庇仁面, 保寧郡 周浦面, 寬倉里, 洪城郡 廣川邑 甕岩里 等地的 支石墓처럼 西海岸 地帶에 있는 것과 扶餘 恩山面 新大里 것처럼 錦江流域에 있는 것의 二群이 있는데 여기 陽村것은 大江流域 또는 海岸에서는 떨어져 있으나 仁川은 錦江의 支流이며 亦是 錦江流域群으로 包含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保寧, 洪城의 例는 確實히 알 수 없으나 舒川이나 扶餘의 例는 모두 地上에 놓인 南北을 長軸으로 한 大石들이며 扶餘것은 有光教一氏(考雜二八一)에 依하면 南式일 것이라고 報告되어 있다.

醴泉 東本洞發見 金銅觀音菩薩立像

秦 弘 燮

醴泉 東本洞에 三層石塔과 巨大한 石佛立像이 있다. 이 石佛立像은 膝部以下가 埋沒되어 있었으나 最近에 信徒들에 依하여 埋沒된 部分이 發掘되어 아직까지 보이지 않았던 아름다운 足部와 蓮臺의 一部를 나타내게 되었다. 이렇게 埋沒된 部分을 發掘하는 途中 今年 六月에 偶然히 金銅佛像 一軀가 發見되어 所定の 節次를 거쳐 文教部에 報告되었고 이



